음란전단 인쇄업자 잡았다 서울서 찍어 광주에 살포

광주경찰, 성매매 업주 구속· 배포자 등 12명 입건

성 구매 남성들도 조사

반라의 여성사진이 담긴 음란성 불법 전단지를 의뢰·제작·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성매매 업주에게 돈을 받고 불법 전단지를 만들어준 인쇄업자 채모(51)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중구 예관동 자신의 인쇄소에서 광주지역 성매매업주 김모(31)씨 등 2명으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고 5만장당 30만원에 '출장마사지 24시간 대기'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형 크기의 불법 전단지 25만장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에 사용된 그림 파일·거래 장부·컴퓨터 등 증거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불법 전단지 제작을 의뢰한 성매매 업주 김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성매매 업주 배모(47)씨와 성매매 여성·콜센터 종업원·배포자 등 1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를 보고 성 구매에 나선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지역에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1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4500회에 걸쳐 5억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도 채씨의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뒤 종업원 최모(32)씨 등 4명을 고용, 광주 상무·첨단·용봉지구에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제작 단가가 광주의 절반 가량인 서울·대전·대구의 인쇄소에 불법 전단지 제작을 의뢰, 택배로 전달받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중간 브로커를 통해 인쇄업자와 몰래 연락, 불법 전단지를 전달받은 뒤 성매매 여성을 실어나르는 운전 기사들에게 이를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광주시와 지난 12일부터 특별합동단속반 120명을 구성해 상무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성매매 전단 145만장을 압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음란전단 근절 안되는 이유?

인쇄비 단가 일반 광고물의 4배 배포자들 일당 8~10만원 챙겨 성구매자 몰려 광고효과도 높아

음란성 불법 전단지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성매매 업주와 인쇄업자 간 이해관계를 들 수 있다. 21일 광주·전남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 지역 인쇄업소는 대략 120여 곳. 그러나 대부분 음란 전단지 인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업주들은 5만장당 30만원을 주고 서울·대전·대구지역의 인쇄업소에 제작을 의뢰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단가가 비싸 제작 주문이 거의 없다.

서울등지의 영세 인쇄업소가 불법 전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일반 광고물 단가에 비해 4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배포자들도 3만장당 8만~10만원 가량의 일당을 받을 수 있어 쉽게 전단 살포에 응한다.

특히 성매매 업주들은 불법 전단지를 뿌린 만큼 성 구매자들이 몰리는 '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해 왔다. 전단지를 보고 하루평균 15명~20명의 성 구매자가 업소를 찾는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결국, 음란전단은 인쇄업자와 성매매업자, 배포자들에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법 전단살포의 뿌리가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의 처벌이 약하고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던 단속 행태도 불법 전단지 배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가 2년 전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광주시 남구 양림교의 바닥을 유리로 포장했으나 광주시가 유리 바닥재 위를 아스콘으로 덧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이없는 양림교 보도 공사

주민의견 무시 … 1억5400만원 들여 유리로 포장

낙상 등 사고 빈발에 2년도 안 돼 아스콘 덧씌워

광주시가 광주천교량경관개선사업을 벌이면서 남구 양림교 보도 바닥을 유리로 깔았다가 2년도 채 안 돼 아스콘으로 덧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시작 전 유리로 보도 바닥을 시공할 경우 낙상 등 사고가 잇따르고 예산도 낭비된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교체공사를 벌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림교의 경관개선을 위해 모두 6억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시공했으며, 보도 확장 및 유리 포장 등에는 1억5400만원이 소요됐다.

광주시는 그러나 바닥재 교체와 관련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유리 파손 등으로 관리·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완공된 지 2년 만에 유리 바닥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로 해 최근 공사를 마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해 따로 예산은 안 들었다"며 "공사 초기 외관에만 치중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주시의 공사과정을 지켜본 인근 주민들은 '예산 낭비'와 '근시안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모(여·52)씨는 "공무원과 업체,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유리를 깔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사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데 묵살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94억원을 들여 광주천 상·하류 교량 21곳에 대해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부 시민들은 광주천경관개선사업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디자인 치중,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친구 빚보증 50대 재산 압류에 목매

지난 20일 밤 10시40분께 박모(55·광주시 동구 운림동)씨가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홍모(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홍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최근 은행으로부터 재산 압류 통지를 받고 힘들어 했는데,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약 15년 전 친구의 은행 대출금 보증을 섰으며, 친구의 사업이 부도나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재산 압류 통지를 받고 힘들어했다는 유가족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충석 여수시장 명예훼손 무혐의

신순범 전 의원은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21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충석 여수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6·2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시장이 '민주당 후보인 오현섭 전 시장을 겨냥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오 전 시장 측은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에 오 전 시장이 연루됐고, 지난 5월 30일 신순범 전 국회의원 폭행사건에도 관련돼 있다'는 김 시장 측의 루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검찰에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한 오 전 시장의 연루설이나 신 전 의원 폭행 연루설은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며,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의원의 경우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막걸리 4병에 음주측정 0.315?

쌍나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50대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315%)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강변해 눈총.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3·자영업)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꽃집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중인 김모(39)씨의 누비라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에서 "막걸리 4병을 마셨다"고 주장.

○…음주측정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무려 0.315%로 나타나자, 경찰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0.4% 정도면 의식과 기억력이 상실될 정도의 수치인데 고작 막걸리 4병을 마셨다는 김씨의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고흥 외매물도 해상에 신원미상 남자 변사체

21일 오전 9시50분께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외매물도 남쪽 50m 해상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숨진 채 바다에 떠있는 것을 낚시객 김모(55)씨가 발견,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이 사체는 신장 180㎝ 가량의 건장한 체격으로, 발견 당시 검정색 속옷 차림에 검정색 반팔 티셔츠,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여수해경은 시신을 수습해 고흥의 한 병원에 안치하고, 지문 조회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여중생과 7차례 성관계 방글라데시인 3명 구속

광양경찰은 21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A(32)씨 등 방글라데시인 3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광양지역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과 모텔 등에서 광양 모 중학교 1년 B(13)양과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의 숙소인 광양 모 아파트에 사는 B양과 지난해 12월부터 알고지내며 각각 2~3차례씩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말에 능숙한 A씨가 평소 외국인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던 B양과 친해진 뒤 동료 2명과 함께 공원과 노래방 등을 오가며 서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낯선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양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경찰에서 "B양에게 돈을 주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진월동서 20대 성추행범 검거

연쇄 성추행범은 아닌 듯

광주남부경찰이 최근 남구 진월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여중생을 성추행한 20대가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20일 만취상태에서 새벽 시간대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양모(28·광주시 남구 백운동)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이날 새벽 2시55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광주 모 중학교 3년 A(15)양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지난달 발생한 연쇄 성추행 사건의 범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관내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광주남부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 전단지 4000장을 제작해 광주서부경찰 등 광주지역 4개 경찰서에 배포하고, 진월동·주월동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호기자 kimho@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하남점	
1관	마법사의제자(전체)	1관	포화속으로 (12세)
2관	마음이2 (전체)	2관	나잇&데이 (15세)
3관	포화속으로(12세)/이클립스 (12세)	3관	슈렉 포에버(더빙) (전체
4관	이클립스 (12세)	4관	슈렉 포에버(3D) (전체
5관	명탐정코난-천공의난파선 (전체) 나잇&데이 (15세)	5관	슈렉 포에버(더빙) (전체
6관	슈렉포에버(더빙)(전체)/포화속으로(12세)	6관	인셉션(12세)
7관	인셉션(12세)	7관	인셉션(12세)
8관	이끼(18세)	8관	이클립스 (12세)
9관	이끼(18세)	9관	이클립스 (12세)
10관	인셉션(12세)	10관	마법사의제자(전체)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련면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인셉션(12세)	최고급관
2관	이끼(18세)	
3관	이클립스 (12세)	
4관	나잇앤데이(15세)/마법사의제자(전체)	
5관	이끼(18세)	
6관	마음이2 (전체)	
7관	이클립스 (12세)	
8관	마법사의제자(전체)	
9관	인셉션(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511-1000

CINUS

1관	인셉션(12세)
2관	이클립스 (12세)
3관	슈렉 포에버 (전체)/이 끼(18세)
4관	마음이(전체)/나잇&데이 (15세)
5관	이 끼(18세)
6관	마법사의제자(전체)
7관	인셉션(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